

핵의학 협력 유망 국가 베트남을 가다

위 선 미*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국제협력실 주임



제7차 베트남 전국 원자력기술 컨퍼런스가 지난 8월 30~31일간 베트남 다낭시에서 베트남 원자력 협회,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다낭시 과학기술국 주최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학술적 성격이 강한 베트남 국내 행사로 대부분 베트남어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대표단은 베트남의 원자력 관련 기술 및 연구 성과를 조사하고 일본 및 프랑스의 대(對)베트남

원자력 협력 활동을 파악하는 한편, 베트남 원전 및 원자력 기술 수출에 우호적 기반 조성하면서 베트남 원자력계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베트남 국내 200여명의 전문가와 한·일·불 3개국 전문가 약 20명이 참석해 핵물리, 방사성폐기물, 농·생명공학, 핵의학 및 방사선 치료, 방사선 방호 및 안전 분야의 연구 결과 및 사업 추진 경험 등을 발표했으며, 또한 프랑스 국영 전력 회사 EDF, 일본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 산하 기관, 한국의 한수원 및 KAIST, RCARO 등에서 자국의 원전 도입·개발 등 사업 추진 경험을 발표했다.

프랑스 EDF는 중국 등 아태 지역을 한 단위로 묶어 지역 본부를 베이징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데, 특히 하노이 사무소는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EDF의 배포 자료 등 홍보물은 베트남 현지어로 작성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시바가 하노이에 사무소를 새로 개설한 바 있다.

우리 대표단은 한·베 방사선의학 공동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108 병원」의 판치민 바오 핵의학 과장을 면담, 공동연구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다낭시 핵의학 장비 구축 사업을 위해 다낭시 트린룽 트란 보건국장 및 팜흥 치엔 다낭시립병원 원장을 면담, 베트남 측의 경제 개발협력기금(EDCF) 신청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을 비롯 다낭시 병원의 핵의학 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한양대 공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국제협력실 근무(2004년~)



제7차 베트남 전국 원자력기술 컨퍼런스 회의 모습

다낭시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신청을 한 상태로 베트남측 내부 심의는 9월 중 완료될 전망이다. 다낭시립병원 측은 부지를 이미 확보하는 등 다낭시 차원에서 건축을 위한 준비를 끝냈으며, 준공을 2008년 말로 예상하고 있다. 다낭시립병원은 베트남 중부권의 거점 병원으로 비교적 현대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측 대표단이 다낭시립병원 관계자들과 방사선의학 공동연구

센터 건립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108 병원은 공동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 완료 예정이다. 이후 준공은 내년 5월 중 조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연간 150,000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5,000명이 사망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약 10%만 대응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을 2000년 대비 30% 저감

하고, 유방암, 구강암, 직장암 등의 사망률을 저감하며, 선진암의 발생 비율을 80%에서 50%로 저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6-2010 암 퇴치 국가 5개년 계획을 최근 승인한 바 있다.

베트남은 전국 6개 권역(하노이, 호치민, HUE, Can Tho 등)에 암 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2006년 11월 IAEA가 전문가팀을 파견에 암 퇴치 분야 상



다낭시립병원과 핵의학 장비 설립 부지 모습



우리 측 대표단이 다낭시립병원 관계자들과 방사선의학 공동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황을 진단했는데 방사선 진단 시설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방사선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 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베트남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수요의 30%만 생산하고 있는 동위원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연구로 증설을 주장하고 있다.

협력을 넓히는데 있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협력 국가와의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발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 베트남. 정부와 기관, 기업이 손을 잡고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면 베트남은 원자력 기술 수출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



한·베 방사선의학 공동연구센터가 들어설 108병원



공동연구센터가 들어설 부지를 둘러보는 대표단



연구센터 조감도